

황토를 지역특산품으로 - 충북 보은군 -

I. 지역여건과 사업추진 배경

1. 보은군의 지역여건

총 면적 583.66km²로 충북대비 7.8%, 전국대비 0.5%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는 보은군은 충청북도의 중남부지역에 위치한 관광·농업군으로서 북으로는 충청북도청의 소재지인 청주시와 남으로는 옥천군과 대전광역시, 동으로는 경북 상주시 등 대도시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금강과 한강, 낙동강 등 3강의 원류로서 그밖에 속리산 등 많은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12.9%로 취약한 자치단체이다.

행정구역은 1읍 10면, 174개 법정리, 460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4,956세대 42,0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8명, 인구밀도는 74명 / km²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산업구조는 대부분 농업과 관광이 주를 이룬 관광·농업군으로서 1차산업이 65%, 2차산업이 10%, 3차산업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과 대추, 사과, 배 등으로 전국 각지 대형 유통점에서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관광지로는 속리산국립공원과 그 안에 있는 법주사,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TV에 소개된 서원계곡과 만수계곡, 또한 신라 자비마립간 13년에 3년동안 축성했다는 삼년산성, 그리고 대전·충남권과 청주권의 식수원인 대청댐이 있다.

문화재로는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비롯한 3점의 국보와 5점의 보물이 있으며, 조선 세조가 속리산 행차할 때 임금이 타는 가마 연이 나무가지에 걸리어 지나가지 못하게 되자 왕이 "나무가지에 연 걸린다."라고 말하자 밑가지가 저절로 들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왕이

그 자리에서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2품의 벼슬을 내렸다는 정이품송을 비롯한 3종의 천연기념물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축산성인 삼년산성이 사적지로서 유명하다.

또한, MBC드라마 촬영장소로 사용되었던 99칸의 방이 있는 선병국 가옥외 1점의 중요민속자료가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다. 또한, 보은군의 30%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군 전체의 12.8%에 해당하는 면적인 속리산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며, 또한, 군 면적의 17.2%인 회남·회북면 지역이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군 면적의 23%인 135km²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IMF 등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아직까지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은군 상징물은 옛날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개나리와 보은의 특산물로서 옛부터 진상품으로 알려진 대추, 그리고, 희망과 희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하는 까치를 상징물로 삼고 있다.

2. 사업추진배경

본격적인 지방화·세계화·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보은군에서는 지역경영전략 차원에서 지역고유의 독특한 이미지와 잠재력을 살린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던 중 보은군 소재 국립공원 속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43.9m의 등산로를 개설하고 1999년부터 매년 11월에 등반대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던 중 등반대회를 마치고 내려온 등반객 들이 피로를 느끼게 되자 피로를 회복시켜 줄 만한 방법을 찾던 중 등반로 진입로에 매장되어 있는 황토를 다리에 바르고 등산을 해 보았을 때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황토볼을 개발하게 되어 보은군에서는 이 제품의 제조방법을 특허출원 시키고 회사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금액의 2%를 로열티로 납부기로 보은군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보은군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질 좋은 황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대 및 군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관광보은과 황토보은이 이미지를 부각시켜 황토농산물 재배 및 판로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II. 황토관련 사업개요

1. 황토틀길 조성

황토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탐방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며 국내외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속리산 황톳길 조성》

- 개장일시 : 2000. 10. 21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위 치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속리산 잔디밭)
- 사 업 량
 $L = 348, B = 1.5m \sim 8m$
- 2001년도 코오롱 마라톤 선수와 충청북도 육상
 선수단이 속리산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피로
 회복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도 인기
- 속리산 황톳길 개장 1주년 기념 사은행사 :
 완주자에게 황톳탈취제 제공(2,000개)
- 속리산 황톳길 증설:2002년도 150m(공사 시공중)
- 참고사항 : 황톳볼 제작방법을 보은군에서 특허
 출원(2000-32991호)



▲ 속리산 황톳길

2. 황토제품 판매장 구축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황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인터넷 구축 및 판매장 개설

《황 토 제 품 판 매》

- 황토제품 판매장 개설
 - 일 시 : 2000. 7. 28
 - 규 모 : 18평
 - 취급품목 : 황토볼, 황토비누, 황토방석,
 황토베개, 황토토기, 황토타일 등
- 황토보은 인터넷 구축



▲ 황토제품 판매장

- 일 시 : 2001. 11. 9
- 소 요 액 : 6백만원
- 내 용 : 각종 황토제품을 소개하여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케 구축
- 주요활동사항
 - 업 체 : 생산 및 판매
 - ⇒ 판매금액의 2%를 보은군에 로열
티로 납부
 - 보은군 : 제품홍보

3. 황토볼 생산

황토의 신비를 몸소 체험하고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차별화 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황토볼 제조》

- 위 치 :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구인리 외속농공단지내
- 설 립 : 2000년 2월 10일
- 규 모 : 부지 8,538㎡, 건축면적 2,835㎡
- 생산품목 : 황토볼, 황토 미립자 등

4. 황토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

보은군은 2000. 6. 15일 황토볼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을 지적재산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에 보은군에서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 황토관련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황토볼 및 황토콩나물의 재배방법 및 재배장치, 지압돌기를 갖는 황토패널의 제조방법, 황토 지렁이를 이용하는 의약부의품 및 이들의 제조방법 등 4개가 특허출원 되었으며, 황토볼이 상표등록, 황토용기 및 액체용기가 실용신안등록, 황토민속그림타일 등이 의장등록되어 지적재산권이 확보되었다.

또한, 향후 제품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보은군에서는 이러한 독창적인 황토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보다 부가가치가 크면서 지역 생산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반대 급부로 재정을 확충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있다.



▲청정보은 서원계곡

Ⅲ. 황토 관련 사업 추진실적

99년 7월 14일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향토지적재산 발굴 및 관리계획지침 시달회의에 참석 99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향토 지적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투입된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자 3명으로서 인건비 4백만원이 소요되었다.

4개월간에 거친 조사결과 권리화 대상으로 기등록 9건, 등록대상 98건 등 총 107건이 발굴되었다. 2000년 4월 21일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심의한 결과 최종 107건이 확정되었으며 권리화 대상중 군에서 추진해야할 대상이 10건, 민간에서 추진해야할 대상이 88건으로 확정되었다. 황토볼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일자별로 나열하면 99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역내 부존자원을 조사하여 군내에 질 좋은 황토가 전지역에 다량 매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서 황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하여 99년 7월 27일 7개업체 대표와 공무원 39명으로 황토연구회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황토제품 개발 및 홍보방안을 협의하게 되었고, 99년 11월 24일 종합적인 지적재산 활용을 위해 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를 서울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정하여 민간 5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0년 4월25일 황토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생황토보다 저온 열처리한 구운황토에서 원적외선이 더 많이 방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능조사 결과 황토볼은 발바닥지압으로 노화방지 및 성인병예방에 효능이 있고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인체내의 각종 발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약화시키고, 인체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물론 세포조직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황토성분을 체험한 결과 독소를 제거하고, 분해력을 강화시키며, 정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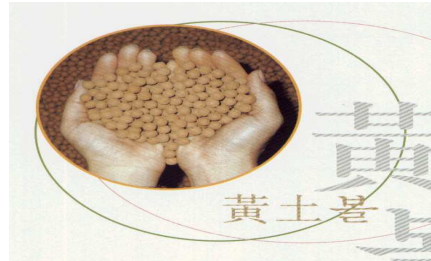
따라서, 이를 응용한 황토제품을 다각적인 연구 끝에 2000년 6월 15일 2000-32991호로 황토볼 제작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마쳤다.

황토볼의 특성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보은군에서 생산·판매되는 황토볼은 저온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맨발로 걸어도 전혀 질척거림이 없고 황토 본래의 성분을 그대로 유지 가능하며 영하 20℃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또한, 흡수력이 높아 비를 맞거나 물에 닿아도 깨지지 않는다. 황토볼은 0.8mm 부터 22mm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실내외 지압용 및 냉장고 탈취제,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7월 28일에는 보은읍 말티휴게소내에 18평 규모의 황토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황토볼, 황토비누, 황토방석, 황토베개, 황토토기 등 황토제품과 보은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황토토기)



(황토볼)

황토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면 기미·주근깨·잡티제거,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해 주고 피부노화방지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황토비누가 있으며 지압용 등에 사용되는 황토볼이 있다. 또한, 원적외선 효과를 장시간 얻을 수 있는 황토볼의 2차 상품인 황토방석과 황토베개가 있으며 음식물 탈취효과가 뛰어난 황토 탈취제가 있다. 그 밖에도 2000년 11월 18일 2000-68698호로 특허출원한 황토 콩나물 재배방법 및 재배장치가 있으며, 황토 민속그림타일, 황토 옷걸이, 황토 술잔, 황토팩, 황토 발바닥 지압판 등이 출시되었다.

특히, 황토비누는 우체국 주문판매망을 갖추고 있으며 황토민속 그림타일은 소비자가 원하는 그림을 넣어 제조하되 판매단가는 기존 타일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각 유명회사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9월 25일에는 상징물 권리 확보 및 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 10월 21일에는 길이 348m, 폭 1.5m로 조성된 속리산 황톿길을 개장하였는데, 이 황톿길은 황토볼 홍보 및 관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성하게 되어 대내외 많은 주요인사들과 관광객,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장되었다. 2000년 11월 10일에는 황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00년 11월 18일 콩나물의 재배방법

및 그 콩나물의 재배장치를 특허출원하였고 2001년 3월 31일 황토보은 홈페이지를 영어와 일어로 번역 단장하여 외국인 네티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조성된 황톳길을 살펴보면 보은군청 청사 앞, 보은읍 말티휴게소 앞, 마로면 적암휴게소 앞,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 강원도 평창읍사무소, 전북 무안군, 경부고속도로 황간 휴게소 상·하행선, 경북 왜간역, 청주시청, 대전 서구청, 천주교 청평 수련원, 서울 성동구청, 서울 잠원동, 보은군 삼년산성, 강릉 경포대, 구미 선산, 영등포구청, 청주 항공관리공단 등 전국 각지에 이러한 황톳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용되고 있다. 2001. 9. 3 보은군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향토지적 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사례 발표에서 보은군이 황토사업을 주제로 발표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IV. 황토제품 판매사업의 전개방향

황토사업의 완료이후에 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보다 많은 활성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되어진 제품이 지속적인 시장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자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황토제품 판매사업의 시장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매망의 구축, 브랜드 홍보마케팅 활동의 전개, 유관 기관단체와의 전략적 연계 등과 같은 정책사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다양한 판매망 구축

먼저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판매망을 활용하여 사업초기의 홍보기간을 단축하고 지역의 모든 주체가 다양한 판매망과 다 채널의 판매루트를 개발해 나가야만 황토사업의 시장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입주업체 : 전국의 도소매업 판매
- 군 : 전국의 기관·단체의 판매 및 지원
- 우체국 우편주문 판매상품화 강구 및 통신 판매회사와 연계한 판촉 강구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 판매 활성화

- 황토제품 판매전시장을 마련하여 내방객에게 안내하고 방문자를 미래의 고객으로 확보
- 내·외국인의 선물용 판매를 위한 장식용 황토제품의 다양한 개발 검토
- 다양한 상품의 지속적인 신개발로 지속적인 고객 확보 노력 강구

2. 황토제품 홍보마케팅 활동의 전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황토제품 상표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홍보 마케팅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적극 검토되어 활발한 판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황토제품에 대한 상표 부착으로 황토보은의 이미지 전국에 부각
 - TV프로그램 방영 유도 및 중앙 및 지방지를 통한 홍보 강화
 - 관광안내도 및 홍보 팜플렛 등에 제작 홍보
 -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한 황토 판매장 안내 및 판매 홍보
 - 배부용 정기간행물 여백 활용 등을 통한 홍보
- 황토제품 포장재의 세련 디자인 개발로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
- 각 사회 단체홍보 :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자유총연맹,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등 전국단위 사회단체 홍보물 배부

3. 유관 기관단체의 판매활동 강화

황토제품 판매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활동의 강화도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전국의 유관기관·단체에 황토제품 제작사업의 홍보활동 전개
- 저렴한 황토제품의 보급 및 보은군의 품질보증을 통한 판매망 확충
- 판매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애프터서비스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철저한 서비스 마케팅으로 고품격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
- 황토관련 단체 등의 체계적 관리체제구축을 통한 DB마케팅 전개

4. 속리축전과의 전략적 연계

보은군의 최대 축제인 속리축전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황토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축제행사 개최기간 중 황토제품 만들기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관람객이나 방문객이 체험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접목되어야 함.
- 이에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지향형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문화관광 상품으로 접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체험형 패키지 프로그램
 - 황토 제조체험 + 시연
- 테마관광 코스 개발
 - 황토판매장 ⇒ 황토체험시설 ⇒ 황토마을 방문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적 감각에 맞게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다양화하고, 일반인이 쉬우면서도 교육적이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황토의 신비에 대하여 관심을 촉발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2년도에는 보은군 보은읍 대야리 일원에 200평 규모의 황토 체험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행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황토를 재료로 하여 만든 팩과 머드를 바르고 등산을 체험토록 하고 황토와 약초를 가미한 건강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V. 앞으로의 발전계획

미래 보은군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토사업은 몇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자원시설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황토마을 조성하는 등 명실공히 테마가 살아있는 종합적인 황토타운으로서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보은을 황토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보은을 하드웨어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동시에 갖추어진 조화로운 개발을 지향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경

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지식기반시대에 명실공히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관광 모델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1. 『황토연구소』 개설

황토 관련 인프라시설을 인접지역에 집중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보은을 황토의 메카이자 무공해의 관광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황토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학문적·기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황토 연구소』를 개설하여 종합적인 황토연구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2. 황토 관련 신소재 상품의 다양한 개발

일반적으로 지역방문객들의 마지막 감동은 해당지역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각종 기념상품 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느끼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지역서비스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판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황토 관련 신소재형 서비스 기념상품의 다양한 개발과 접목을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황토 관련 신소재 상품의 개발
 -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연구
 - 현대사회에 걸맞은 장식용 황토 신상품 개발
 - 황토시계, 황토 발바닥 지압판, 정이품송 액자 등
- 황토제품 개발 품목의 특허 등록 추진
- 황토제품에 전통미를 응용한 공예품 개발 및 연구

3. 황토에 대한 저변 확대와 생활화

보은군에서는 향후 황토제품을 일상생활 필수품에 접목시켜 생산·판매함으로써 황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4. 테마형 관광자원화

향후 보은군은 황토의 본향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접목시키면서 관련자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 조성함으로써 『황토보은』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속리축전과 연계하여 보은을 황토의 메카로 육성하여 이를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황토고장』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황토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테마형 관광자원화를 도모토록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관광경영 수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황토마을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황토의 신비를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황토축제의 경우도 군내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행사내용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있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VI. 맺음말

산업의 발달은 환경오염이라는 폐해를 가져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당당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경영이나 지역경영도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은군에서는 지역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질 좋은 황토를 개발하여 보은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보은군에서는 우선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추가 발굴하고 황톳길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며 그 밖에 황토사업과 연계된 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 농특산물의 판매증진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거두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 재정확충을 위한 근간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보은군의 4만여 군민과 군 산하 전 공무원은 힘을 합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황토사업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황토사업을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경영행정으로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초일류의 경쟁력이 있는 『황토의 고장 보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